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7. 2. 26일(월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	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정의현, 사무관 고상룡, 주무관 홍덕곤 • ☎ (044) 201-4244, 4255, 4256
보도일시		2018년 2월 2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2.27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정부·항공사·훈련기관...항공정비인력 양성에 한 목소리 훈련시설 구축비용 지원·취업연계과정...5년간 4천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,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·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('18~'22)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『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』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- 금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, 항공사·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
 - B737기종 등 중·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*과 협업하여 실습장과 장비(엔진, 도어, 시뮬레이터 등)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**을 신설하여,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·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,
 - * (전문교육기관) 조종사·정비사·관제사 양성을 위해 학과·실기과목, 교관 및 시설·장비 요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(연 1회 정기심사)
 - **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한 '한국에어택직업전문학교(전문교육기관)'에 대해 최초로 B737기종 교육과정 인가(2.14), 3월중 교육생 모집 예정
 -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*할 계획이며, 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·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

지원액(시간당)	최소 6,540원 ~ 최대 9,840원				
지원율(%)	100%	90%	70%	50%	20%
취업률(%)	70% 이상	70~55%	55~45%	45~35%	35% 미만

- 또한, 高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(6개월)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정비인력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항공 정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항공사·MRO업체의 정비능력을 제고하여 국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”으로 본다면서,
 - 정부, 항공사·MRO업체,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「항공정비인력 양성 협의체*」를 구성·운영하여 『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』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* 협의체 kick-off회의 개최 : '18.2.28일(수) 13:30, 김포공항

붙임 「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」 주요내용 1부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고상룡 사무관(☎ 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추진배경

- 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, MRO사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정비 인력 수요 증가*에 대응, 양질의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추진

* 5년간('18~'22) 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 및 MRO업체의 정비인력 채용 계획 등을 고려 시 약 4,000여명의 정비인력 추가 필요

II. 추진방향 및 전략

추진방향
항공사·훈련기관·MRO업체와 협업하여
양질의 정비인력 일자리 창출【 4천여명 / 5년간 】

추진 전략	☞ 경력정비사 등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양질의 정비인력(4,000여명) 양성 및 취업 연계						
	연도	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	취업(명)	4,060	741	586	804	927	1,002

III. 추진과제

① LCC 경력정비사 등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

- 전문교육기관(16개) 중 희망기관을 선정, B737 등 중·대형기 정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*(훈련시설·장비·전문교관 등) 구축 추진

* (예) B737 시뮬레이터·엔진·랜딩기어 등 훈련장비 도입 및 실습장 확보

② 취업 연계형(LCC, MRO 등) 교육과정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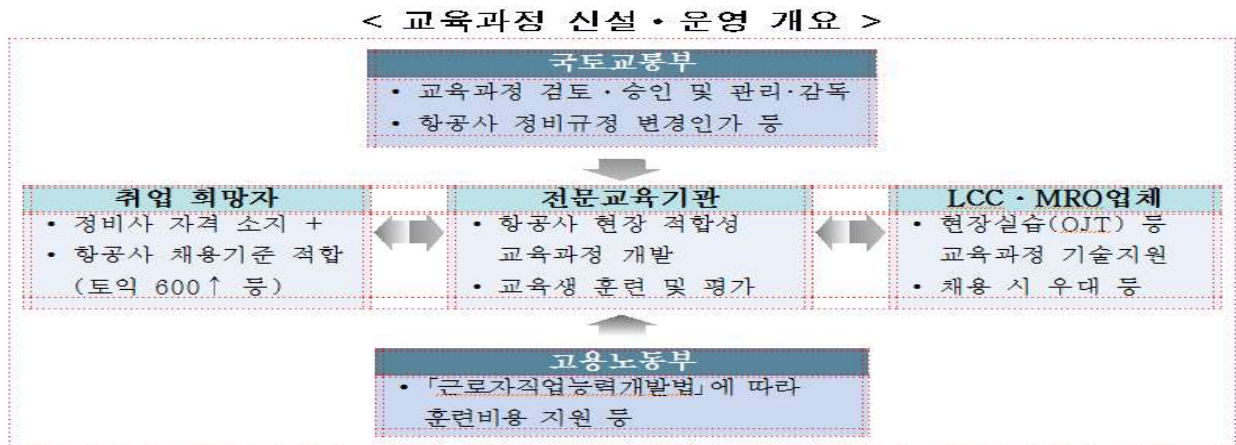
- (취업 연계) B737 등 중·대형기 정비교육 인프라를 활용, 업체 (LCC·MRO 등)별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* 신설

* 4개월(학과 3개월, 실기 1개월) 과정으로 운영(연간 220여명)

- 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**훈련비용을 지원***하고, 교육과정 이수자는 **업체 채용 시 우대**

* 훈련비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협의하여 추진

- (재직자 훈련) LCC 및 MRO업체 소속 정비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위탁 교육과정으로도 활용



③ 정비인력 양성 협의체 구성 · 운영

- 정비인력 수급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**항공사 · 훈련기관 · MRO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***

* 항공사(LCC) · 훈련기관 · MRO업체 간 상호 위탁 교육훈련 및 채용 연계 방안 등 협의, 항공정비분야 정책 · 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

④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사다리 연계

- 高졸자 등 취약계층이 MRO업체 등 항공정비분야 직종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**단기 교육과정 도입 · 운영*** 및 취업 연계

* 취업율 35% 이상 시 훈련비용의 최소 50% 정부(고용부) 지원 가능

- MRO업체(또는 전문교육기관) 등과 협의하여 **과정***을 개설 · 운영하고, **軍정비 부서관 · 병으로 취업**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

< 단기 교육과정 개요 >

개설기관	교육내용	입과대상	교육기간	교육비
MRO 업체(또는 전문교육기관 등)	정비일반, 기체 · 엔진 등 (정비기능사 취득 가능)	고졸자 또는 군필자	6개월 (840시간)	약 540만원 (시간당 6,540원).